

업종별 경영자원과 경영성과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 신 중*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s of the Management Resources and Economic Performance among Industries

Shin-Joong,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특성및 경영성과에 있어서 업종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업종집단에 따라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간 경영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서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간의 경영성과의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업종간 경영특성 규모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군과 열등한 기업군간의 경영특성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업종에 따라 특정 경영특성에 대한 과도한 혹은 과소한 투자가 경영성과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업종의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으며, 경영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cause of economic performance differences among industries. For this purpose, several hypothesis are established and tested (1) Whether the firm's capability and performance are different among industries? (2) Whether the firm's management resources affects the performance are different among industries? (3) Whether the firm's performances are different between high performance group and low performance group in same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1) the level of firm's capability and performance are different and (2) the management resources which affect the performance are different according the industry. And (3) the management resourc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rm's performance level in same industry.

* 대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 본 논문은 1998년도 대전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논문접수:1999.9.27. 심사완료:1999.12.5.

I. 서 론

기업의 초과이윤 달성을 가능케 해주는 요인으로서 산업의 매력도와 경쟁자에 대한 경쟁우위의 확보라는 두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이때 산업의 특성 및 매력도와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는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에서 비롯된다(장 세진, 1997). 따라서 기업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중에서 어떠한 경영자원이 경쟁우위의 근본적 원천 즉,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 되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지속 여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업종별로 경쟁력 획득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수립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원기준관점(resource-based view of firm strategy)에 근거하여 개별기업의 내부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업종별로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상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한 어떠한 경영특성이 성과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업종별로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간에 경영특성 변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과 증대를 도모하는 기업의 전략적 시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4년 이후 3년간의 자료 획득이 가능한 외부감사 대상 이상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특성의 내용을 최근 경영전략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영자원측면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II. 연구가설의 도출 및 주요 변수의 측정

2.1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회 및 위협과 조직 내부의 강점 및 약점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조직 내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간 기업 내부역량의 차이로 인한 경영성과의 차이 발생에 초점이 맞춰 이루어졌다(Selznick 1957, Andrews 1971). 그러나 1980년대 Porter(1980, 1985)가 산업구조 분석기법을 경영전략 분야에 도입하면서 경영전략 분야의 관심은 기업에서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산업조직론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경영전략 부문에서의 연구들은 기업환경과 전략간의 관계규명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개념과 검증 가능한 가설들을 제시함으로써 전략경영론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Porter 방식의 접근방법은 전략의 결정요인으로서 환경의 영향 분석에 중점을 둠에 따라 기업 특유의 능력을 유발하는 자원의 집합으로서의 기업 내부 문제는 완전히 무시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매력적인 산업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특정 산업에서의 성공기업과 실패기업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Briance, 1989). 또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산업구조와 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산업간의 차이보다는 산업내의 성과 차이가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Schmalensee, 1988) 이처럼 외부환경 보다는 경쟁우위가 기업간 성과차이의 주요 원천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쟁우위의 원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영전략의 분석초점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제시되기 시작한 경영자원론을 기점으로 다시 산업에서 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업 특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 내부자원의 분석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경영자원론(resource-based theory)의 주창자인

Penrose(1959)는 개별 생산요소가 기업 안에서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더 큰 가치를 창조하므로 이러한 경험과 학습이 조직내부에 축적되어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Wernerfelt(1984)가 Penrose의 기업성장론(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을 경영자원론으로 개칭하여 전략분야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후 Prahalad와 Hamel(1990)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 개념 발표 이후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경영자원론관점의 연구자들은 산업의 특성 보다는 기업 특유의 자원과 능력이 성과에 대한 설명력이 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면서 경영자들이 어떻게 자원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기업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Rumelt, 1991) 이에따라 경영자원론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 개별기업 그 자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초과이익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이 아니라 기업이 적절한 분석대상이며 특히 기업의 내부능력이 핵심변수임을 지적한다.

경영자원론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제품시장에서의 기업 행동이 아니라 유·무형 자원들의 독특한 결합으로서 기업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Lippman과 Rumelt(1982)는 기업간 수익성 차이는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모방불가능한 경영자원(unimitable resource)에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Barney(1986)는 생산요소시장의 불완전성이 경영우위의 근본임을 지적하고 "경영자원이 이질적이고 이동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초 진입자의 우위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Dierickx와 Cool(1989)은 Barney의 주장을 확장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에 있어서의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차이가 개별 경영자원이 축적되어 온 과정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의 연구는 향후 경영자원이 지적경영자원(knowledge-based resource)이나 조직학습이론(organizational learning)과 결합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같이 경영자원이론은 Porter류의 산업구조 분석에서 수익률의 원천이 되는 유리한 산업구조와 경쟁우위가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밝혔다.

2.2 연구가설의 도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기업의 참여업종에 따라 경쟁력

의 원천이 되는 경영특성과 경영성과상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 미치는 경영특성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 업종 집단별로 경영성과및 경영특성상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설 2 : 업종 집단별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업종 집단별 경영성과 차이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기업을 업종별로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이들 집단간에 경영특성상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가설 2>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산업별 경쟁우위의 확보를 통한 성과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 업종 집단별로 경영성과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경영특성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2.3 주요변수의 측정

2.2.1 경영성과 변수

일반적으로 회계성과 측정치는 측정이 용이하고 가장 객관적이며,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 측정을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업의 경영성과를 다음 <식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매출액 증가율로 측정하였다.

$$\text{매출액 증가율} = (\text{당해연도 매출액} / \text{전년도 매출액}) - 1 \text{ --- } \langle \text{식 1} \rangle$$

2.2.2 경영특성 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특성을 경영자원론에서 제시하는 경영자원에 기초하여 기업의 경영자원을 물적자원, 무형자원, 인적자원, 재무자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러한 경영자원의 구분은 Chatterjee & Wernerfelt (1991)가 제시한 경영자원의 구분에 인적자

〈표 1〉 집단별 업종 및 기업 현황

| 업종 | 대기업 | | 중소기업 | | 합계 | |
|--|---------------|----|----------------|-----|-----------------|-----|
| 집단 1 음식료품 | 65 | | 77 | | 142 | |
| 집단 2 섬유 | 43 | | 109 | | 152 | |
| 집단 3 의복 및 모피 가죽, 가방, 미구류 및 신발 | 23 11 | 34 | 25 29 | 54 | 48 40 | 88 |
| 집단 4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 5 23 13 | 41 | 8 56 27 | 91 | 13 79 40 | 132 |
| 집단 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화학물 및 화학제품 | 6 79 | 85 | 10 185 | 195 | 16 264 | 280 |
| 집단 6 고무 및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제품 | 13 31 | 44 | 53 99 | 152 | 66 130 | 196 |
| 집단 7 제 1 차 금속 | 36 | | 90 | | 126 | |
| 집단 8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 17 33 | 50 | 105 115 | 220 | 122 148 | 270 |
| 집단 9 사무계산 및 회계용기계 기타 전기기계, 변환장치 | 13 10 | 23 | 15 74 | 89 | 28 84 | 112 |
| 집단 10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38 5 | 43 | 88 22 | 110 | 126 27 | 153 |
| 집단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 | 23 7 14 | 44 | 118 7 26 | 151 | 141 14 40 | 195 |
| 계 | 508 | | 1,338 | | 1,846 | |

원을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물적자원은 기업 경영의 근대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장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text{노동장비율} = (\text{유형고정자산} - \text{건설가계정}) / \text{종업원 수} \quad \text{〈식 2〉}$$

한편 무형자원은 광고비 집약도와 연구개발비 집약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광고비 집약도는 매출액 대비 광고비 지출로 측정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집약도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29)로 측정하였다.

$$\text{광고비집약도} = \text{광고비 지출} / \text{매출액} \quad \text{〈식 3〉}$$

$$\text{연구개발비 집약도} = (\text{제조원가 명세서상 연구개발비 지출} + \text{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지출} + \text{대차대표표상 이연자산 중 당기계상액}) / (\text{매출액}) \quad \text{〈식 4〉}$$

재무자원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사용하였다. 유동비율은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과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단기채무상환능력

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해당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이는 장기부채의 원리금 지급능력을 의미하며, 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 정도를 평가하는 비율로 이용된다.

$$\text{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 / \text{유동부채} \quad \text{〈식 5〉}$$

$$\text{부채비율} = \text{총부채} / \text{총자산} \quad \text{〈식 6〉}$$

인적자원은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로 측정하였다.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는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text{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 = \text{교육훈련비} / \text{종업원 수} \quad \text{〈식 7〉}$$

1) 연구개발비 지출이란 제조원가명세서상 연구개발비 지출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중 연구개발비 지출과 이연자산중 연구개발비로 당기에 계상된 금액을 합한 것이며, 이중 이연자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서 직접 구할 수 없어 이연자산 기초, 기말과 당기상각분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임.

Ⅲ.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3.1 표본의 추출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거 1994년에서 1996년까지 3년간의 자료 획득이 가능한 외부감사 대상 이상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표본으로 선정된 제조업부문 21개 업종에 속하는 1,846개 기업을 연구상의 편의를 위하여 업종의 유사성에 따라 총 11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집단별 업종 및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영특성을 외생변수로, 경영성과를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업 집단별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대상기업을 11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이용하여 검정하였으며, 각 모집단간의 분산이 동일한 경우에는 Duncan 다중검정을 이용하여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집단간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Dunnett T3 다중검정을 이용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업 집단별로 경영성과에 각 경영특성 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경영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변수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각 집단에 속한 기업을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군으로 분류한 후 두 집단간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상의 차이 여부를 t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t 검정을 이용한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한 분산의 동질성 여부는 Levene 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표 2> 업종집단별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상의 차이 분석 결과

| 집단 | 변수 | 매출액 성장률 | 경 영 자 원 변 수 | | | | | |
|------------------|-----|---------|-------------|---------|-----------|---------|---------|-------------|
| | | | 노동장비율 | 광고비 집약도 | 연구개발비 집약도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종업원1인 교육훈련비 |
| 집단 1 | 평균값 | 14.8473 | 68129.49 | 243.935 | 24.189 | 100.059 | 2638.04 | 121.598 |
| 집단 2 | 평균값 | 10.0746 | 54648.80 | 22.514 | 25.857 | 115.355 | 1419.93 | 93.208 |
| 집단 3 | 평균값 | 15.9523 | 27766.84 | 168.409 | 14.173 | 132.072 | 803.60 | 58.873 |
| 집단 4 | 평균값 | 15.5714 | 62972.67 | 74.752 | 20.721 | 126.202 | 525.70 | 73.516 |
| 집단 5 | 평균값 | 17.9147 | 108226.76 | 257.569 | 81.453 | 147.617 | 348.15 | 204.201 |
| 집단 6 | 평균값 | 16.3316 | 76532.09 | 18.403 | 25.847 | 109.236 | 752.86 | 63.198 |
| 집단 7 | 평균값 | 19.3141 | 78845.13 | 12.338 | 20.905 | 116.703 | 897.56 | 61.549 |
| 집단 8 | 평균값 | 21.0126 | 42045.67 | 35.755 | 66.270 | 122.552 | 601.35 | 63.007 |
| 집단 9 | 평균값 | 24.3468 | 34272.06 | 43.486 | 143.840 | 171.683 | 609.07 | 100.892 |
| 집단 10 | 평균값 | 22.1701 | 30374.28 | 48.597 | 158.380 | 152.120 | 395.80 | 91.755 |
| 집단 11 | 평균값 | 19.0846 | 39030.70 | 71.636 | 75.963 | 103.616 | 775.50 | 68.927 |
| 전 체 | 평균값 | 18.0191 | 60359.80 | 95.318 | 62.244 | 126.364 | 829.38 | 97.199 |
| Levene 통계량 | | 2.308 | 16.016 | 92.433 | 41.047 | 7.453 | 6.783 | 8.033 |
| Levene 통계량의 유의확률 | | 0.011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F 값 | | 7.490 | 11.278 | 30.588 | 22.751 | 7.900 | 2.379 | 6.318 |
| 유의확률 |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8 | 0.000 |

3.3 연구결과 및 해석

3.3.1 업종 집단별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 규모에 관한 분석

본 연구의 <가설 1>에서 업종 집단별로 기업의 경영성과와 경영특성상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의 검정을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표 2>를 살펴보면 경영성과 변수인 매출액 성장률과 모든 경영특성 변수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분산분석을 위해서는 각 표본들이 정규집단으로부터 추출되어진 것이며, 이들 각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연구대상 표본의 정규성 및 집단간 분산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업의 크기가 충분히 크므로 정규성에 대한 검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각 모집단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대해서만 Levene 검정을 이용하여 검정하고자 한다. <표 2>에 의하면 경영성과 및 모든 경영특성 변수의 Levene 통계량 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집단간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설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간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의 유의한 차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하여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 변수에 대하여 Dunnett T3 다중검정을 이용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3>와 같이 유의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이 나타난다.

각 셀의 숫자는 유의수준 0.05에서 해당 집단과 유의한 평균차이를 갖는 집단의 번호임

결론적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연구대상 기업의 집단

간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 변수의 크기에 있어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업종 집단별 경영특성 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조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이 업종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업종 집단별로 제조기업의 어떠한 경영특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별로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경영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하여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출액 성장률과 경영특성 변수들과의 중회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업종 집단별로 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변수에 차이가 존재하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변수도 집단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3> Dunnett T3 다중검정을 이용한 다중비교 결과

| 변수 | 집단 | 집단1 | 집단2 | 집단3 | 집단4 | 집단5 | 집단6 | 집단7 | 집단8 | 집단9 | 집단10 | 집단11 |
|---------|------------|-------------------|-----------------|-------------------|------------------|--------------------------|-----------------|----------------------|-------------------|----------------|------------------------|-------------------|
| 매출액 성장률 | | 8, 9, 10 | 4,5,7,8,9,10,11 | 9 | 2, 8, 9, 10 | 2 | 9 | 2 | 1, 2, 4 | 1, 2, 3, 4, 6 | 1, 2, 4 | 2 |
| 경영특성 | 노동경비율 | 3, 8, 9, 10, 11 | 3, 5, 7, 9, 10 | 1,2,4,5, 6, 7, 8 | 3, 8, 9, 10, 11 | 2, 3, 8, 9, 10, 11 | 3, 8, 9, 10, 11 | 2, 3, 8, 9, 10, 11 | 1,2,4,5, 6, 7, 10 | 1,2,4, 5, 6, 7 | 1,2,4,5, 6, 7, 8 | 1,4,5, 6, 7 |
| | 광고비 집약도 | 2,4,6,7,8,9,10,11 | 1,3,4,5 | 2,4,6,7,8,9,10,11 | 1, 2, 3, 5, 6, 7 | 2,4,6,7,8,9,10,11 | 1,3,4, 5, 8, 11 | 1,3,4,5,8, 9, 10, 11 | 1,3,5, 6, 7 | 1,3,5, 7 | 1,3,5, 7 | 1,3,5, 6, 7 |
| | 연구개발비 집약도 | 5, 8, 9, 10, 11 | 5,8,9, 10,11 | 5,8,9, 10,11 | 5, 8, 9, 10, 11 | 1,2,3,4,6, 7, 10, 10, 11 | 5,8,9, 10, 11 | 5,8,9, 10, 11 | 1,2,3,4, 6, 7, 10 | 1,2,3, 4, 6, 7 | 1,2,3,4,5, 6, 7, 8, 11 | 1,2,3,4, 6, 7, 10 |
| | 유동비율 | 3, 4, 5, 8, 10 | - | 1, 11 | 1, 11 | 1, 6, 7, 8, 11 | 5, 10 | 5, 10 | 1,5,11 | - | 1,6,7, 11 | 3,4,5, 8, 10 |
| 변수 | 부채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업원당 교육훈련비 | 3,6,7,8 | - | 1, 5 | 5 | 3,4,6,7,8,9,10,11 | 1, 5 | 1, 5 | 1, 5 | 5 | 5 | 5 |

〈표 4〉 업종 집단별 매출액성장률과 경영특성 변수간의 중회귀분석 결과

| 변수 집단 | 노동장비율 | 광고비집약도 | 연구개발비 집약도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종업원1인당 교육훈련비 | 수정된 R제곱 | F값 | Sig. F |
|----------|----------------|----------------|--------------|----------------|---------------|-----------------|------------|-------|-----------|
| 집단 1 | -.095(-1.132) | .195(2.221)* | .008(.095) | .079(-.935) | -.072(-.876) | .156(1.777) | .061 | 2.519 | .024* |
| 집단 2 | .028(.367) | -.016(-.202) | .084(1.126) | -.191(-2.604)* | .238(3.248)* | -.347(-4.456)* | .199 | 7.271 | .000* |
| 집단 3 | -.252(-2.307)* | -.021(-.186) | -.051(-.480) | -.014(-.131) | -.114(-1.056) | .169(1.469) | .023 | 1.336 | .251 |
| 집단 4 | .123(1.484) | .140(1.549) | .213(2.598)* | -.108(-1.281) | .089(1.048) | .202(2.179)* | .148 | 4.796 | .000* |
| 집단 5 | .133(2.196)* | -.109(-1.803) | .107(1.812) | -.160(-2.657)* | .022(.359) | -.035(-.584) | .064 | 4.201 | .000* |
| 집단 6 | .093(1.217) | -.022(-.297) | .115(1.580) | -.140(-1.949) | .025(.345) | -.052(-.683) | .009 | 1.290 | .264 |
| 집단 7 | .070(.702) | -.013(-.144) | -.057(-.618) | -.108(-1.187) | .145(1.562) | -.078(-.785) | .005 | 1.112 | .359 |
| 집단 8 | .024(.388) | -.090(-1.448) | .205(3.421)* | -.111(-1.755) | .006(.091) | .114(1.851) | .055 | 3.633 | .002* |
| 집단 9 | .136(1.464) | .023(.222) | .121(1.291) | -.138(-1.488) | .110(1.189) | .198(1.902) | .066 | 2.299 | .040* |
| 집단10 | .042(.525) | -.226(-2.854)* | .217(2.622)* | -.021(-.273) | -.018(-.230) | .221(2.566)* | .118 | 4.396 | .000* |
| 집단11 | .068(.931) | -.220(-2.905)* | .008(.114) | -.007(-.093) | -.016(-.227) | .121(1.600) | .025 | 1.817 | .098 |

제시된 값은 표준화 계수이며 ()의 값은 t value임.

*는 유의수준 5%에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요인

3.3.3 업종 집단별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경영 특성의 차이 분석

앞서 제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업종별 경영특성 및 경영성과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집단에 따라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특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업을 집단별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열등한 기업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이들 집단 간에 경영특성상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t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경영성과 변수인 매출액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집단별로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으로 분류한 후 집단별로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간 경영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요약된 결과에 따르면 집단 1과 집단 4에 속하는 기업군에서는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열등한 기업에 비해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3에서는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의 노동장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5에서는 노동장비율과 부채비율에서는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이, 광고비집약도 및 유동비율에 있어서는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7에서는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의 유동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집단 10에서는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약도와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가 유의하게 높으며,

집단 11에서는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의 광고비집약도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집단 2, 6, 8, 9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영특성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4 업종별 경영성과 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의 종합적 분석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별로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군과 열등한 기업군간에 경영특성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변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경영특성상의 유의한 차이가 과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서 각 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매출액 성장률을 이용하여 집단별 기업을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열등한 기업으로 분류하여 집단간 경영특성상의 차이 여부를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집단간 매출액 성장률과 경영특성 변수간의 중회귀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4〉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집단 3에 속하는 기업군에서는 경영성과에 “-” 영향을 미치는 노동장비율에 있어서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4에 속하는 기업군에서는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경영성과에 “+” 영향을 미치는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5에서는 경영성과에 “+” 영향을 미치는 노동장비율

〈표 5〉 매출액성장률 수준에 따른 업종 집단별 경영성과 및 경영특성 규모 비교

| | | 매출액 성장률 | 노동장비율 | 광고비 집약도 | 연구개발비 집약도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종업원 교육훈련비 |
|-------|----------|---------------|--------------|--------------|--------------|--------------|---------------|--------------|
| 집단 1 | 낮은기업군 | 5,308732 | 65617.23 | 219.72 | 24.21 | 101.92 | 2304.31 | 88.81 |
| | 높은기업군 | 24,385962 | 70641.76 | 268.15 | 24.17 | 98.20 | 2971.78 | 154.38 |
| | t값(유의수준) | -11.13(.000)* | -.446(.656) | -.750(.455) | .006(.996) | .414(.679) | -.242(.809) | -2.35(.021)* |
| 집단 2 | 낮은기업군 | .367853 | 46309.68 | 32.15 | 17.42 | 123.46 | 1268.93 | 130.43 |
| | 높은기업군 | 19,781324 | 62987.92 | 12.88 | 34.29 | 107.25 | 1570.93 | 55.99 |
| | t값(유의수준) | -11.55(.000)* | -1.668(.098) | 1.743(.085) | -1.549(.124) | .930(.354) | -.345(.730) | .683(.496) |
| 집단 3 | 낮은기업군 | 4.434625 | 35036.98 | 131.56 | 17.72 | 126.63 | 1141.83 | 41.38 |
| | 높은기업군 | 27,470005 | 20496.71 | 205.26 | 10.63 | 137.51 | 465.37 | 76.37 |
| | t값(유의수준) | -12.48(.000)* | 2.199(.031)* | -1.568(.121) | 1.034(.305) | -.787(.434) | .847(.400) | -1.77(.080) |
| 집단 4 | 낮은기업군 | 6.590152 | 57406.26 | 50.01 | 13.42 | 127.61 | 420.89 | 40.75 |
| | 높은기업군 | 24,552580 | 68539.09 | 99.50 | 28.02 | 124.79 | 630.50 | 106.28 |
| | t값(유의수준) | -13.80(.000)* | -1.186(.238) | -1.760(.081) | -1.465(.146) | .258(.797) | -1.709(.283) | -2.20(.031)* |
| 집단 5 | 낮은기업군 | 6.671835 | 60854.49 | 354.88 | 80.77 | 173.49 | 226.38 | 185.85 |
| | 높은기업군 | 29,157504 | 155599.02 | 160.26 | 82.13 | 121.75 | 469.92 | 222.55 |
| | t값(유의수준) | -10.21(.000)* | -3.36(.001)* | 3.847(.000)* | -.101(.920) | 4.704(.000)* | -2.388(.018)* | -.853(.394) |
| 집단 6 | 낮은기업군 | 4.437655 | 79037.02 | 22.07 | 22.98 | 118.36 | 557.93 | 72.95 |
| | 높은기업군 | 28,225545 | 74027.15 | 14.73 | 28.72 | 100.11 | 947.79 | 53.45 |
| | t값(유의수준) | -9.17(.000)* | .427(.670) | 1.246(.215) | -.787(.432) | 1.721(.088) | -.833(.406) | 1.275(.204) |
| 집단 7 | 낮은기업군 | 9.091540 | 80447.03 | 16.60 | 29.50 | 129.51 | 462.36 | 65.18 |
| | 높은기업군 | 29,536670 | 77243.24 | 8.08 | 12.31 | 103.89 | 1332.77 | 57.92 |
| | t값(유의수준) | -9.82(.000)* | .323(.748) | 1.386(.169) | 1.979(.051) | 2.459(.016)* | -1.338(.186) | 440(.661) |
| 집단 8 | 낮은기업군 | 10.144667 | 38132.71 | 42.23 | 51.57 | 126.41 | 590.85 | 54.95 |
| | 높은기업군 | 31,880588 | 45958.62 | 29.28 | 80.97 | 118.69 | 611.86 | 71.07 |
| | t값(유의수준) | -14.47(.000)* | -1.824(.069) | 1.788(.075) | -1.863(.064) | .974(.331) | -.146(.884) | -1.408(.160) |
| 집단 9 | 낮은기업군 | 12.023566 | 33416.76 | 34.03 | 134.77 | 201.15 | 306.14 | 77.41 |
| | 높은기업군 | 36,670002 | 35127.36 | 52.94 | 152.91 | 142.22 | 911.99 | 124.37 |
| | t값(유의수준) | -10.53(.000)* | -.317(.752) | -1.380(.170) | -.415(.679) | 1.228(.224) | -1.342(.185) | -1.591(.115) |
| 집단 10 | 낮은기업군 | 7.743209 | 27824.08 | 55.63 | 80.37 | 160.42 | 464.82 | 50.19 |
| | 높은기업군 | 36,786757 | 32958.03 | 41.47 | 237.42 | 143.71 | 325.86 | 133.86 |
| | t값(유의수준) | -12.74(.000)* | -1.114(.267) | .833(.407) | -3.90(.000)* | .988(.325) | .912(.363) | -3.54(.001)* |
| 집단 11 | 낮은기업군 | 9.463845 | 39624.27 | 102.71 | 66.18 | 103.73 | 656.14 | 57.33 |
| | 높은기업군 | 28,804499 | 38431.01 | 40.25 | 85.84 | 103.50 | 896.10 | 80.64 |
| | t값(유의수준) | -12.02(.000)* | .357(.721) | 2.185(.030)* | -1.188(.236) | .035(.972) | -.764(.446) | -1.610(.109) |

은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경영성과에 “-” 영향을 미치는 유동비율은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집단 10에서는 경영성과가 높은 기업이 경영성과에 “+”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비 집약도와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 모두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군에 비해 높으며, 집단 11에서는 경영성과에 “-” 영향을 미치는 광고비 집약도가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외의 집단인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영특성 변수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변수간에 뚜렷한 인과관계

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경영특성에 관한 많은 투자나 열등한 투자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각 업종의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 계획 수립시 이들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으며, 현재 경영성과가 열악한 기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경영특성에 있어서 업종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와 경영성과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비교하여 보았다. 또한 업종에 따라 경영성고가 우수한 기업군과 열등한 기업군 간에 어떠한 경영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봄으로서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간의 경영성과의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업종별로 경영성과 변수인 매출액 성장률과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경영특성에 있어서는 업종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업종별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 변수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업종별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동일한 경영특성 변수도 업종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 기업을 업종별로 경영성과에 따라 우수한 기업군과 열등한 기업군으로 분류한 후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군과 열등한 기업군간의 경영특성에 있어서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 경영성과에 따라 업종별로 경영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업종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경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경영특성에 관한 과소한 투자가 경영성과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업종의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계획 수립시 이들의 투자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으며, 현재 경영성과가 열악한 기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 장우, 경영전략론, 서울:법문사, 1997.
- [2] 장 세진, 경영전략, 박영사, 1997
- [3] 허 문구, 전략군내 기업의 성과차이와 그 원인:자
원기준 관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
교, 1992.
- [4] Andrews, K., The Concept of Corporate
Strategy, Homewood, Il:Irwin, 1971.
- [5] Barney, J. B., "Strategic Factor Markets :
Expectation, Luck and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Science, Vol.32, 1986,
pp.1231-1241.
- [6] Briance Mascarenhas, "Strategic Group
Dynamic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2, 1989, pp.333-352..
- [7] Chatterjee, Sayan and Birger Wernerfelt,
"The Link Between Resource and Type of
Diversification:Theory and Evide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2,
1991, pp.33-48.
- [8] Dierickx, Ingemar and Karl Cool, "Asset
Stock Accumul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mpetitive Advantages," Management
Science, Vol.35, 1989, pp.1504-1511.
- [9] Ford, Jeffrey D. and Deborah A.
Schellevberg, "Conceptual Issues of
Linkage in the Assess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7, No.1, 1982,
pp.49-58
- [10] Lippman, S.A. and R.P. Rumelt,
"Uncertainty Imitability:An Analysis of
Interfirm Differences in Efficiency under
Competi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13, 1982, pp.418-438.

- [11] Penrose, E.T.,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Basil Blackwell, 1959.
- [12] Porter, Michael E., "The Structure within Industries and Companies' Performa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1, 1979, pp.214-227.
- 13. _____, Competitive Strategy, Free Press, 1980.
- 14. _____, Competitive Advantage, Free Press, 1985.
- 15. Prahalad, C.K. and Gary Hamel,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rpor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68, 1990, pp.79-91.
- 16. Rumelt, Richard P. "How Much Does Industry Matt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2, 1991, pp.167-185.
- 17. Schmalensee, Richard, "Industrial Economics: An Overview," Economic Journal, Vol.98, Sep., 1988, pp.643-681
- 18. Selznick, P., Leadership and Administration, Harper & Row, N.Y., 1957.
- 19. Wernerfelt, B., "A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5, 1984, pp.151-180.

저자 소개



김 신 중

- 85. 2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 93. 2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박사)
- 94. 3 - 97. 2 수원과학대학 사무자동화과 조교수
- 97. 3 - 현재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